소용돌이 속으로의 추락

A Descent into the Maelström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A Descent into the Maelström" (1841)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신의 섭리는 신의 뜻이 그러하듯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다. 우리가 세운 그 어떤 모형도 신이 창조한 세계의 광대함과 심오함,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신의 업적은 데모크리토스의 우물보다도 더 깊은 심연을 품고 있다.

—조셉 글랜빌.

우리는 마침내 가장 높은 암벽의 정상에 도달했다. 노인은 기력이 다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막내아들만큼이나 이 경로를 잘 안내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약 3년 전, 필멸의 인간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아니 적어도 살아남아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법한 사건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때 겪은 여섯 시간 동안의 죽음 같은 공포가 내 몸과 영혼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았지요. 내가 아주 노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검은 머리카락이 백발로 변했고, 사지는 약해졌으며, 신경은 풀어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떨리고, 그림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내가 이 작은 절벽 너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너무나 부주의하게 몸을 던져 쉬고 있었던 그 '작은 절벽' 말이다. 몸의 대부분이 절벽 너머로 쏠려 있었고, 오직 팔꿈치 하나가 미끄러운 끝자락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덕분에 추락을 면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작은 절벽'은 검게 빛나는 매끄러운 암벽으로 이루어진 수직의

낭떠러지였으며, 우리 발치 아래 펼쳐진 바위산들로부터 1,500~1,600 피트가량 높이 솟아 있었다. 나는 그 절벽 끝에서 채 6야드 안쪽으로는 발조차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사실 동료가 처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너무도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채 주변의 관목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거센 바람 때문에 산의 토대 자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헛된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일으켜 앉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되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망상은 이제 그만 떨치셔야 합니다." 가이드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이곳으로 모신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가장 잘 볼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을 보며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는 특유의 상세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노르웨이 해안에 거의 다다랐네. 위도 68도, 노르란드 주, 그리고 황량한 로포텐 지역에 들어와 있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산봉우리는 구름에 싸인 헬세겐 산이라네. 자, 이제 몸을 조금 더 높이 일으켜 보게. 어지러우면 풀이라도 붙잡고 말이야. 그렇지, 이제 우리 발아래 깔린 안개띠 너머, 저 먼 바다를 바라보게나."

나는 어지러운 눈을 들어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물은 마치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누비아의 지리학자가 기록한 '암흑의 바다(Mare Tenebrarum)'를 즉각 떠올리

게 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을 만큼 황량하고 처참한 풍경이었다. 좌우로는 눈이 닿는 곳마다 세상의 성벽처럼 끔찍할 정도로 검고 가파른 절벽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하얗고 섬뜩한 파도를 높게 일으키는 파도는, 그 절벽이 지닌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강렬하게 부각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의 바로 맞은편, 바다 저 멀리 5~6마일 지점에는 작고 황량해 보이는 섬 하나가 보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속에 휩싸여 있어 그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 해안에서 약 2마일 정도 더 가까운 곳에는 그보다 작은 섬이 하나 더 솟아 있었다. 그 섬은 흉측할 정도로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메말라 있었으며, 곳곳에 검은 암초들이 무리 지어 섬을 에워싸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섬과 해안 사이로 펼쳐진 바다의 모습은 무척이나 기이했다. 당시 육지 쪽으로 몰아치는 강풍이 워낙 거세어, 먼바다에 떠 있던 범선 한 척이 돛을 두 번이나 접어 내린 채 겨우 버티며 선체 전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의 파도는 일반적인 너울과는 전혀 달랐다. 그저 짧고 빠르게, 화가 난 듯 사방으로 몰아치는 물결이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기도 하고 비껴가기도 하며 거칠게 부딪힐 뿐이었다. 바위 근처를 제외하면 하얀 거품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은," 노인이 말을 이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부르그라고 부른다네. 중간에 있는 섬은 모스쾨고. 북쪽으로 1마일 떨어진 곳에는 암바렌이 있지. 저 너머에는 이슬렌, 호트홀름, 카일헬름, 스아르벤, 그리고 버크홀름이 있고. 더 멀리 모스쾨와 부르그 사이에

는 오터홀름, 플리멘, 산드플레센, 스톡홀름이 있다네. 이것들이 이 지역의 진짜 이름들이지. 하지만 왜 굳이 이런 이름들을 붙여야 했는지는 자네나 나나 이해하기 힘들군. 그런데, 무슨 소리 안 들리나? 물결이 변하는 게 보이지 않는가?"

로포텐 내륙에서 올라온 우리는 헬세겐 정상에 도착한 지 10분 정도 지나 있었다. 정상에 올라서고 나서야 비로소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마주할 수 있었다. 노인이 말을 이어갈 때쯤,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커다란 소리를 감지했다. 그 소리는 마치 미국의 대초원에서 거대한 버펄로 떼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점점 더 커져 갔다. 동시에 나는 발밑의 바다가 선원들이 말하는 특유의 '출렁이는' 상태에서, 동쪽으로 세차게 흐르는 조류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이 조류는 괴물 같은 속도로 빨라졌다. 매 순간 속도가 붙었고, 거침없는 기세는 더욱 맹렬해졌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르그(Vurrgh)까지 이르는 바다 전체가 통제할 수 없는 광기로 휘몰아쳤다. 하지만 가장 격렬한 소용돌이는 모스쾨와 해안 사이에서 몰아치고 있었다. 수천 개의 물길이 뒤엉키고 상처 입은 듯 갈라져 있던 거대한 바다 밑바닥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다는 솟구치고, 끓어오르고,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대하고 무수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줄기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처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동쪽을 향해 휘몰아치며 가라앉고 있었다.

몇 분이 더 지나자, 현장의 풍경은 또 한 번 근본적으로 변했다. 전반적인 수면은 다소 매끄러워졌고, 소용돌이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다. 대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거대한 거품 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줄기들은 마침내 멀리까지 뻗어 나가 서로 뒤섞이더니, 가라앉았던 소용돌이들의 회전 운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마치 더 거대한 소용돌이가 태동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정말이지 순식간에, 이 움직임은 지름이 1마일이 넘는 거대한 원을 그리며 뚜렷하고도 명확한 실체를 드러냈다.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는 번뜩이는 물보라가 넓은 띠를 이루며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물방울도 공포스러운 깔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 눈이 닿는 곳까지 이어지는 소용돌이 내부의 벽은 매끄럽고 빛나는 칠흑 같은 물의 벽이었다. 이 벽은 지평선을 향해 약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채,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며 흔들리고 요동쳤다. 그리고는 바람을 타고 비명 같기도 하고 포효 같기도 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뿜었다. 그것은 나이아가라의 거대한 폭포조차 하늘을 향해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내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처절한 소리였다.

산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더니 바위마저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바닥에 엎드린 채, 간신히 붙어 있는 얼마 안 되는 풀떼기에 매달렸다.

"이것은," 나는 마침내 노인에게 말했다. "이것은 분명 메일스트룀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가 말했다.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은 모스쾨 섬의 이름을 따서 모스쾨스트룀이라고 부릅니다. 그 섬이 중간에 있거든요."

이 소용돌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록들을 읽었을 때만 해도, 내가 실제로 목격하게 될 광경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요나스 라무스의 기록은 아마도 가장 상세한 편에 속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기록은 눈앞에 펼쳐진 장엄함이나 공포를 조금도 전달하지 못한다. 게다가 보는 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기이하고도 낯선 감각 또한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만든다.

해당 기록자가 어떤 관점에서, 또 어느 시점에 그 광경을 관찰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헬세겐의 정상에서 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묘사 중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인용할 만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다. 비록 그 내용이 실제 광경이 주는 압도적인 인상을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말이다.

"로포텐과 모스쾨 사이의 수심은 36에서 40패덤 사이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베르(Ver) 쪽으로 가면 수심이 급격히 얕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평온해도 암초에 부딪힐 위험 없이 배가 지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는 로포텐과 모스쾨 사이의 내륙 쪽으로 물살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하지만 바다를 향해 사납게 빠져나가는 썰물의 굉음은 그 어떤 거대한 폭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소리는 수 리그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큽니다. 소용돌이

치는 구덩이는 규모와 깊이가 어마어마해서, 일단 배가 그 인력권에 끌려 들어가면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 바닥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고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물결이 잦아들 때쯤이면 그 파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온한 순간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기에 날씨가 좋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것도 고작 15분 남짓이며, 곧 다시 격렬한 물살이 몰려옵니다. 물살이 가장 거세고 폭풍까지 몰아치는 날에는 노르웨이 1마일 이내로 접근하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보트나 요트, 큰 배들도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물살에 휩쓸려 가버리곤 합니다. 고래들도 이 물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휘말리는 일이 잦은데,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울부짖음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곰 한 마리가 로포텐에서 모스쾨까지 헤엄쳐 가려다 물살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해안가까지 들릴 정도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전나무와 소나무 떼도 물살에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떠오르곤 하는데, 그때 보면 마치 가시가 돋아난 것처럼 나무들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찢겨 있습니다. 이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무들이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물살은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조절되며, 6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만조와 간조가 반복됩니다. 1645년, 섹스게지마 주일의 이른 아침에는 물살이 어찌나 사납고 요란했는지, 해안가 집들의 돌덩이들이 땅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수심에 관해서라면, 소용돌이 바로 근처에서 어떻게 깊이를 측정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언급한 '40패덤'이라는 수치는 모스쾨나 로포텐 중 어느 한쪽 해안에 인접한 수로의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모스쾨스트룀 중심부의 수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을 것이었다. 헬세겐의 가장 높은 암벽에서 소용돌이치는 심연을 곁눈질로 슬쩍 내려다보기만 해도 이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 절벽 꼭대기에서 아래쪽의 울부짖는 불길 같은 소용돌이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정직한 요나스 라무스가 고래와 곰에 관한 일화들을 믿기 힘든 일이라며 기록해 놓은 대목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전열함이라 할지라도 저 치명적인 인력의 영향권에 들어선다면, 허리케인에 휘말린 깃털처럼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통째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이다.

그 현상을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책으로 읽었을 때는 꽤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던 가설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설명들은 전혀 다르게, 아주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이 소용돌이는 페로 제도 근처에 있는 세 개의 작은 소용돌이와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며 암초와 선반 모양의 지형에 부딪히는 파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 이 지형이 물길을 가두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게 만드는데, 밀물이 높게 차오를수록 낙차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과

정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소용돌이이며, 그 엄청난 흡입력은 작은 규모의 실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설명이다.

키르허를 비롯한 다른 이들은 메일스트룀 해협의 중심부에 지구 내부를 관통하여 아주 먼 곳까지 이어지는 심연이 있다고 상상하기도 한다. 한 사례에서는 그 끝이 보트니아만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 자체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던 내 상상력은 그 가설에 가장 쉽게 동조하고 있었다. 내가 가이드를 붙잡고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노르웨이 사람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앞서 말한 파도 충돌 이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 점에서는 나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아무리 글로 읽었을 때 완벽한 이론이라 해도,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이 거대한 천둥소리 속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황당한 소리로 들릴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소용돌이를 충분히 살펴보았겠지.” 노인이 말했다. “저 암벽 뒤편으로 몸을 숨겨보게나. 그래야 물이 몰아치는 굉음을 피할 수 있을 테니. 거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나면, 내가 왜 모스쾨스트룀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증명해 줄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잡았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와 제 형제 두 명은 예전에 약 70톤급 스쿠너 돛을 단 스맥선을 한 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모스쾨 너머, 거의 부르그 근처까지 이르는 섬들 사이에서 고기를 잡곤 했지요. 바다에 거센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용기만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풍성한 어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포텐 해안의 어부들 중에서 우리 세 형제만큼 정기적으로 저 멀리 섬들까지 나가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보통 어부들이 가는 어장은 훨씬 남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은 위험이 적고 언제든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다들 선호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여기 암초 지대의 명당들은 어종이 훨씬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겁 많은 다른 배들이 일주일 내내 애써 모아도 얻지 못할 양을 단 하루 만에 잡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노동 대신 생명을 걸었고, 자본 대신 용기를 내던졌으니까요."

"우리는 이 해안에서 위로 약 5마일 떨어진 만에 어선을 정박해 두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물살이 잦아드는 15분간의 정조(停潮)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모스쾨스트룀의 주수로를 가로질러 소용돌이 웅덩이 훨씬 위쪽까지 올라간 뒤, 오터홀름이나 산드플레센 근처에 닻을 내렸지요. 그곳은 다른 곳만큼 소용돌이가 격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음 정조가 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물살이 잦아들 때쯤 닻을 올리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갈 때와 올 때 모두 도움이 될 만한 일정한 측풍이 불어야 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움직였고, 다행히 계산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딱 두 번, 바람이 완전히 멎는 드문 일이 생겨 밤새 닻을 내린 채 머물러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도착하자마자 강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거의 일주일 동안 굶어 죽을 지경으로 그 자리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폭풍 때문에 수로가 너무 거칠어서 도저히 지나갈 엄두를 낼 수 없었거든요.

사실 그날,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결국 바다로 떠밀려 나갈 뻔했습니다. 소용돌이가 우리를 너무나 격렬하게 휘감아 돌린 나머지, 결국 닻이 엉켜버려 바닥을 긁으며 끌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우리는 수없이 교차하는 해류 중 하나에 올라탔습니다. 이곳에 나타났다 내일은 사라지는 그런 해류 말입니다. 그 흐름을 타고 우리는 플리멘의 바람그늘 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다행히 그곳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겪은 고충을 다 말하려면 20분의 1도 채 못 전할 겁니다. 날씨가 좋을 때조차 그곳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모스쾨스트룀의 거센 물살을 늘 용케 사고 없이 통과해 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류가 잦아드는 시각보다 1분 정도 빠르거나 늦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처음 예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배가 생각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조류 때문에 배를 조종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졌습니다. 제 큰형님께는 열여덟 살 된 아들이 있었고, 저에게도 씩씩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노를 저어 주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고기를 잡을 때도 유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마 아이들을 그 위험 속에 밀어 넣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정말이지 끔찍한 위험이었으니까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들려줄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겨우 3년이 조금 안 되었다. 18—년 7월 10일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 중 가장 끔찍한 허리케인이 몰아친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완만하고 일정했다. 햇살도 눈부시게 밝았다. 그래서 우리 중 가장 노련한 선원이라 할지라도, 뒤이어 닥칠 일을 결코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형제 셋, 즉 내 두 형과 나까지 포함해 세 사람은 오후 2시쯤 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곧 배에 싱싱한 물고기를 가득 실었다. 그날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유독 풍성했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했다. 내 시계로 정확히 7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닻을 올리고 집을 향해 출발했다. 8시쯤이면 조수 간만의 차가 줄어드는 정조(停潮) 시간이 될 텐데, 그때 맞춰야 소용돌이의 흐름을 가장 수월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현 후방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타고 항해를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순항했다.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실제로 위험을 감지할 만한 징후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헬세겐 너머에서 불어온 돌풍에 배가 뒤로 밀려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람을 타고 나아가려 애썼으나, 소용돌이치는 물살 때문에 배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정박지로 되돌아가자고 제안하려던 찰나였다. 뒤를 돌아본 우리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지평선 전체가 기이한 구리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구름은 놀라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다.

그사이 우리의 진로를 막던 미풍마저 잦아들었다. 배는 완전히 멈춰섰고,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상황을 파악할 겨를조차 없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폭풍이 몰아쳤고, 2분이 채 되기 전에 하늘은 완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거센 물보라 때문에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결국 우리는 작은 배 안에서 서로의 모습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몰아친 허리케인은 도저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경험 많은 노련한 선원조차 그런 폭풍은 평생 본 적

이 없다고 할 것이다. 폭풍이 우리를 덮치기 전, 우리는 이미 돛을 재빨리 내려둔 터였다. 하지만 첫 돌풍이 몰아치자마자, 마치 톱으로 잘라낸 듯 양쪽 돛대가 힘없이 꺾여 내려앉았다. 그때 막내 동생이 안전을 위해 돛대에 몸을 묶어두었던 터라, 주 돛대가 쓰러지면서 동생마저 함께 휩쓸려 가고 말았다.

"우리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볍고 깃털처럼 가뿐한 배였습니다. 갑판은 빈틈없이 매끄러운 평갑판 구조였고, 선수 근처에 작은 해치 하나만이 달려 있었지요. 우리는 거친 파도에 대비해 예방 차원에서, 스트룀을 건너기 전에는 항상 그 해치를 덮어 봉쇄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즉시 침몰했을 겁니다. 실제로 잠시 동안 배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형이 어떻게 파멸을 면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앞돛을 내리자마자 갑판에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발은 좁은 선수 현측에 대고, 양손으로는 앞돛대 밑에 있는 링 볼트를 꽉 움켜쥐었지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동안 우리는 완전히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 동안 나는 숨을 죽인 채 볼트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나는 손으로 볼트를 놓지 않으면서 무릎을 세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겨우 머리 위로 물이 들이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의 작은 배가 마치 물에서 나오는 개처럼 몸을 세차게 흔들더니, 어느 정도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에 잠기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팔을 꽉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이 배 밖으로 떨어졌다고 확신했었기에 나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다음 순간 곧바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형이 내 귀에 입을 바짝 대고는 '모스쾨스트륌!'이라고 비명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내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마치 지독한 열병이라도 앓는 것처럼 온몸이 사정없이 떨려왔다. 그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했는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몰아치는 바람을 타고 우리는 스트륌의 소용돌이를 향해 속절없이 떠밀려 가고 있었고, 그 무엇도 우리를 구할 수 없었다!”

“스트륌 해협을 건널 때는 아무리 날씨가 평온해도 항상 소용돌이 위쪽으로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살이 느려지는 시기를 기다리며 주의 깊게 살펴야 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소용돌이 중심부를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물살이 잦아드는 시점에 딱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희망 따위를 꿈꾼 내 자신이 한심해져서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우리 배

가 90문의 함포를 갖춘 군함의 열 배였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첫 번째 광포함은 어느덧 기세를 잃은 듯했다. 어쩌면 우리가 폭풍을 등지고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 달아나느라 그 변화를 미처 느끼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바람에 짓눌려 거품을 머금은 채 평평하게 누워 있던 바다가 이제는 거대한 산맥처럼 높게 솟구쳐 올랐다는 사실이다.

하늘의 모습 또한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으나, 머리 위 근처에서 갑자기 원형의 틈이 벌어지며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맑고 깊고 푸른 빛이었다. 그 틈 사이로 보름달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광채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달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비추었다. 하지만 오, 신이시여. 그 빛이 비춘 광경이 대체 얼마나 처참하고도 경악스러운 모습이었던가!

나는 형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한두 번 시도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음이 점점 거세지는 바람에, 형의 귀에 대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단 한 마디조차 들려줄 수 없었다. 이윽고 형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마치 '잘 들어!'라고 말하려는 듯 손가락 하나를 치켜세웠다.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서둘러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달빛에 의지해 시계판을 확인한 나는, 절망하

며 시계를 바다 멀리 내던지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시계는 일곱 시에 멈춰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조류가 잦아드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스트룀의 소용돌이는 이미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배를 잘 만들고 무게 중심을 적절히 잡은 데다 짐까지 가볍게 실었다면, 강풍이 부는 날 순풍을 받으며 나아갈 때 파도가 배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지 사람의 눈에는 아주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바다에서는 이를 두고 '라이딩(riding)'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파도를 아주 능숙하게 타고 넘었습니다. 하지만 곧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배 뒷부분 바로 밑으로 덮쳤고, 파도가 솟구칠 때 우리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파도는 마치 하늘을 향해 치솟듯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파도가 저토록 높이 솟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파도가 휩쓸고 내려가며 미끄러지듯 급강하할 때는, 마치 꿈속에서 높은 산꼭대기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파도 꼭대기에 머물던 찰나, 저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으니까요. 모스쾨스트룀 소용돌이가 정면 약 4분의 1마일 지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평소의 모스쾨스트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소용돌이가 평범한 물레방아의 수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

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지 못했다면, 저는 이곳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공포에 질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치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눈꺼풀이 강하게 맞물렸습니다."

그로부터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파도가 잦아들더니 거대한 거품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배는 좌현으로 급격히 반을 돌더니, 마치 번개처럼 새로운 방향을 향해 쏘아져 나갔다. 그와 동시에 물이 포효하던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수천 척의 증기선이 일제히 증기를 내뿜을 때 배수관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우리는 어느새 소용돌이를 늘 에워싸고 있는 파도 지대에 들어서 있었다. 나는 우리가 곧 저 심연 속으로 처박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워낙 빠른 속도로 휩쓸려 가고 있었기에, 눈앞에 보이는 심연의 모습은 그저 흐릿할 뿐이었다.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면 위를 떠다니는 공기 방울처럼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배의 우현 쪽에는 소용돌이가 있었고, 좌현 쪽에는 우리가 방금 떠나온 거대한 바다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는 마치 거대한 벽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와 수평선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거대한 소용돌이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소용돌이에 가까워질 때보다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더는 희망을 품지 않기로 마음먹자, 처음에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공포도 사라졌거든요. 아마도 절망이 오히려 제 신경을 바짝 긴장시켰던 모양입니다."

"자랑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 일인지, 그리고 신의 권능이 이토록 경이롭게 드러나는 순간 앞에서 제 개인의 목숨 따위가 얼마나 하찮은 고려 사항이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는 소용돌이 그 자체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곧 닥쳐올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심연을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마저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슬펐던 점은, 제가 목격하게 될 그 신비로운 광경을 육지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결코 전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기묘한 망상이 떠오른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겠지요. 그 후로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소용돌이 주위를 빙빙 돌던 배 때문에 정신이 조금 혼미해졌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내 평정심을 되찾아 준 또 다른 상황이 있었다. 바로 바람이 잦아든 것이었다.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는 바람이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당신도 직접 보았듯이, 파도가 몰아치는 구역은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훨씬 낮았다. 지금 우리 위로는 검고 거대한 산맥처럼 높은 해수면이 솟아 있었다.

만약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바다를 항해해 본 적이 없다면, 바람과 물보라가 동시에 몰아칠 때 정신이 얼마나 혼미해지는지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먹하게 하며, 숨통을 조여 온다. 판단력은 물론이고 몸을 움직일 힘조차 앗아간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가 형 집행이 불확실한 동안에는 사소한 편의를 허락받는 것과도 같았다.

"우리가 소용돌이의 테두리를 얼마나 여러 번 돌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한 시간 동안이나 쉼 없이 회전했을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날아다니는 듯한 기세로 말입니다. 배는 점점 더 거센 파도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갔고, 이내 그 끔찍한 소용돌이의 안쪽 가장자리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나는 단 한 순간도 고정 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 형은 선미에 매달려 작은 빈 물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통은 선미 덮개 아래에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폭풍이 처음 들이닥쳤을 때 갑판 위에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의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형은 물통을 놓아버리고 고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형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내 손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고리가 우리 둘이 함께 잡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순간 형이 극심한 공포 때문에 정신을 놓아버린 광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형과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고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리를 형에게 내어주고, 물통을 잡으러 선미로 향했습니다. 배가 소용돌이의 거대한 움직임에 따라 앞뒤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비교적 수평을 유지하며 일정하게 회전하고 있었기에 물통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겨우 자리를 잡았을 무렵, 배가 갑자기 우현으로 거세게 기울더니 심연 속으로 머리부터 처박히듯 곤두박질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급히 기도를 읊조리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추락하며 느껴지는 그 구역질 나는 회전감에, 나는 본능적으로 물통을 더욱 꽉 움켜쥐고 눈을 감아버렸다. 몇 초 동안은 감은 눈을 뜰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파괴될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고, 왜 내가 벌써 물속에서 죽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지 의아할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죽음은 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떨어지는 듯한 감각은 사라졌고, 배의 움직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했다. 다만 거품 띠 속에 갇힌 배가 이전보다 옆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눈앞의 광경을 살폈다.

주변을 둘러보며 느꼈던 경외감과 공포, 그리고 경탄의 감정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배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소용돌이 안쪽 벽 중간에 매달려 있었다. 그 소용돌이는 둘레가 엄청나게 넓고 깊이 또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소용돌이의 벽면은

너무나 매끄러워서, 만약 그것이 어지럽게 회전하며 번뜩이는 섬뜩한 빛을 내뿜지만 않았더라면 칠흑 같은 흑단나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앞서 묘사했듯이, 구름 사이로 비쳐든 보름달의 빛줄기가 검은 벽을 따라 황금빛 영광처럼 쏟아져 내리며 심연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엇 하나 제대로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광경에 압도될 뿐이었지요. 하지만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나자, 본능적으로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소용돌이의 경사진 표면 위에 걸쳐 있는 어선이 보였기에, 그 방향으로는 시야가 가로막힘 없이 트여 있었습니다.

배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갑판이 수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수면 자체가 45도 이상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마치 우리가 배를 옆으로 완전히 눕힌 채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버티는 것이 평지에서 서 있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회전하는 속도 덕분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빛이 저 깊고 심연 같은 구렁의 바닥까지 샅샅이 훑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어 무엇 하나 또렷이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안개 위로는 거대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는데, 마치 무슬림들이 시간과 영원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는 그 좁고 위태로운 다리처럼 보였다. 이 안개 혹은 물보라는 소용돌이의 거대한 벽들이

바닥에서 한데 맞물리며 충돌할 때 생겨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안개 속에서 하늘을 향해 터져 나오던 그 비명만큼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거품 띠 위에서 심연을 향해 처음 미끄러져 내려갈 때는 경사면을 따라 꽤 먼 거리를 휩쓸려 내려갔다. 하지만 그 이후의 하강은 처음만큼 급격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용돌이를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움직임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지러울 정도로 휘청거리거나 덜컥거리며 돌았기에, 어떤 때는 고작 몇 백 야드밖에 나아가지 못했고, 어떤 때는 소용돌이의 한 바퀴를 거의 다 돌기도 했다. 회전할 때마다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히 눈에 띌 정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를 실은 배가 떠 있는 광활하고 검은 액체의 황무지를 둘러보며, 나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비단 우리 배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위아래로 배의 파편들과 거대한 건축용 목재, 나무 밑동들이 보였다. 그 곁에는 가구 조각이나 부서진 상자, 통, 나무 판자 같은 더 작은 물건들도 수없이 떠다니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 처음의 공포는 어느덧 기이한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끔찍한 운명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호기심은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나는 이제 우리와 함께 떠내려가는 수많은 물건을 묘한 흥미를 느끼며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마 나는 정신이 나갔던 것이 분명하다. 저 아래 거품 속으로 떨어지는 물건들의 속도를 가늠하며 즐거움마저 느끼고 있었으니 말이다.

"저 전나무가 다음 차례로 저 끔찍한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라지겠군."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네덜란드 상선의 잔해가 그 나무를 앞질러 먼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추측을 던졌으나 매번 빗나갔다. 내가 단 한 번도 맞히지 못했다는 이 사실, 즉 나의 계산이 매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다시금 사지가 떨리고 심장이 무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새로운 공포가 아니라, 더욱 강렬한 '희망'의 서막이었다. 이 희망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관찰이 결합하여 피어올랐다. 나는 모스코스트륌에 의해 흡수되었다가 다시 뱉어져 나온, 로포텐 해안에 널브러진 수많은 부유물들을 떠올렸다. 그 물건들 중 대다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마치 가시가 돋친 것처럼 표면이 심하게 깎이고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중 일부는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냈다.

당시 나는 이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다만 거칠게 변한 파편들은 소용돌이에 '완전히 흡수된' 것들이라고 가정할 뿐이었다. 반면 훼손되지 않은 물건들은 조수 간만의 차가 변하는 시점에 아주 늦게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뒤에도 하강 속도가 매우 느려 바닥에 닿기 전에 밀물이 들어오거나 썰물이 빠져나갔을 것이라 짐작했다. 어느 쪽이든, 일찍 빨려 들어갔거나 빠르게 흡수된 물건들과는 달리, 이들은 다시 해수면 높이까지 휘말려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또한 나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관찰했다. 첫째, 일반적으로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더 빠르게 가라앉는다는 점이다. 둘째, 크기가 같은 두 물체 중 하나가 구형이고 다른 하나가 '그 외의 형태'라면, 구형이 더 빠르게 가라앉는다는 점이다. 셋째, 크기가 같은 두 물체 중 하나가 원통형이고 다른 하나가 '그 외의 형태'라면, 원통형이 더 느리게 흡수된다는 점이다.

탈출한 이후, 나는 이 주제를 두고 그 지역의 한 노교사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원통'과 '구'라는 용어의 쓰임새도 그를 통해 배웠다. 그는 내가 관찰한 현상이 사실 부유하는 파편들의 형태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해 주었다. 비록 구체적인 설명은 잊어버렸지만, 그는 소용돌이 속을 떠다니는 원통형 물체가 어떻게 흡입력에 더 큰 저항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같은 부피를 가진 다른 형태의 물체보다 더 어렵게 빨려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찰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 아주 놀라운 정황이 하나 있었다.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이 관찰 결과들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였다. 그것은 바로 소용돌이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통 모양의 물체나 배의 활대나 돛대 같은 것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다는 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내가 처음 눈을 떠 이 경이로운 소용돌이를 마주했을 때 우리와 같은 높이에 있던 물체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우리 머리 위 저 높은 곳에 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물체들은 처음 위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 붙잡고 있는 물통에 몸을 단단히 묶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 통을 선반에서 풀어낸 뒤, 통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 작정이었다. 나는 몸짓으로 형의 주의를 끌었다. 우리 근처로 떠내려오는 물통들을 가리키며,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형이 알아듣도록 온 힘을 다했다. 마침내 형이 내 의도를 이해한 것 같았다. 하지만 형이 정말로 내 뜻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형은 절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형은 고정 고리 옆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형에게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상황은 한시가 급했다. 결국 나는 괴로운 마음을 누르며 형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나는 물통을 선반에 고정하던 밧줄을 이용해 내 몸을 통에 묶었다. 그리고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물통과 함께 바다로 몸을 던졌다.

결과는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대로였다. 이제 내가 직접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내가 기어코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눈앞에서 보고 있다. 게다가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방법까지 이미 알고 있으니, 이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야기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

배에서 뛰어내린 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거대한 심연 아래로 한참을 내려갔을 때, 배가 갑자기 세네 번 연속으로 격렬하게 요동치더니, 사랑하는 내 형을 품은 채 아래쪽 거품의 혼돈 속으로 단번에, 영원히 처박히고 말았다. 내가 매달려 있던 통은 구렁텅이 바닥과 내가 뛰어내린 지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조금 지난 곳까지밖에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다 소용돌이의 성질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깔때기 모

양의 벽면은 시시각각 경사가 완만해졌고, 소용돌이의 회전도 점차 세력을 잃었다. 거품과 무지개 빛깔도 차츰 사라졌으며, 구렁텅이 바닥은 천천히 솟아오르는 듯 보였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잦아들었으며, 서쪽 하늘에는 보름달이 찬란하게 지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바다 표면에 떠 있었고, 눈앞에는 로포텐의 해안선이 보였다. 내가 있던 곳은 모스쾨스트룀의 소용돌이가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자리였다. 조수가 멈춘 시각이었으나, 허리케인의 여파로 바다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출렁였다. 나는 거센 물살에 밀려 스트룀 해협으로 떠밀려 갔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어부들의 어장 근처 해안까지 흘러갔다.

지칠 대로 지친 나를 한 배가 건져 올렸다. 위험에서 벗어나자, 그간 겪었던 공포가 떠올라 나는 한마디 말도 잇지 못했다. 나를 배 위로 끌어올린 이들은 예전부터 매일 얼굴을 맞대던 동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마치 저승에서 온 나그네 보듯 낯설게 바라보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칠흑 같았던 내 머리카락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얗게 세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 얼굴 표정 전체가 완전히 변해버렸다고도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로포텐의 유쾌한 어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내 말을 그리 쉽게 믿어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